

# 광주 비협조 광화문 집회 참가자 7명 고발

수 차례 검사 권고에도 연락 두절·답변 거부

허위·은폐 진술한 집회 관련 확진자도 고발 방침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검체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을 고발했다.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7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모집·인솔책' 역할을 한 목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 제보 등을 토대로 228명이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228명에 대해선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차례 독려했다. 집회 참가자 228명 중 20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간 전파에 의한 2차 감염을 포함해 집회 관련 확진자

는 총 21명이다. 179명은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 격리됐다. 22명은 '집회에 불참했다'고 답했다. 3명은 연락이 끊겼고, 4명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앞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뒤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휴대전화 GPS 추적이 거짓이 들통나고 발각기도 했다. 시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거나 역학조사 중 관련 동선을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숨겨진' 집회 참가자를 찾

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집회 관련 감염자 중 7명은 당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집회를 다녀온 시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또 다른 무리가 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확진자를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염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뒤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중재의 안전과 방역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 순천·광양 등 '지역감염 7명' 잇따라 발생 '전남 총153명'

지역감염 연결고리 차단 총력... '일상멈춤' 실천 당부

순천·광양 등 전남도내에서 2일 12시 현재 기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광양, 장성, 함평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추가 발생 한데 이어 이들 동안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무한구름과 관련 순천에서 지난달 19일 70대 여성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휘트니스 등에서 2일 오전 현재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순천 65번 확진자는 상사면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66번 확진자는 남정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15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고, 67번 확진자는 연향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8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이었다. 세 명 모두 격리해제를 앞두고 실

시한 재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67명이 확진되는 등 연쇄적인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주 380번 확진자 접촉으로 진도 거주 60대 남성 1명(전남 153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153명으로 해외유입 26명, 지역감염은 127명이다. 지난 1일 오후 확진판정된 광양 20번 60대 남성은 광양시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다. 광양시는 녹십자 의료재단으로부터 양성판정 통보를 받고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모두 완료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하루 587건의 검체를 채취해 누적 2만1954건의 검사를 진행, 이중 2만1303건은 음성이며, 587건은 현재 검사 진행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1661명이다. 광양시는 지난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 4173건을 검사하고, 확진자는 지역발생 16명, 해외입국자 4명이며 자가격리자는 304명이다.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등 발생지역 역학조사반은 신속한 접촉자 분리를 위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정밀 역학조사를 벌여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정형복 광양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 없는 외출과 대면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발생지역 방문 자체를 비롯 외출·모임 자제, 마스크 항상 쓰기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전남도, 집합금지 시설 '마스크 30만장' 긴급 지원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시설을 대상으로 도가 보유중인 마스크를 지원, 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면서 업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 지원은 유흥주점·뷔페·PC방·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 오락실·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 키즈카페·학원 등 1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 등 도내 9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마스크 30장씩 총 30만 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등 시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 점검 시 시·군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내 수해피해 시·군을 비롯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 임시검사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113만 장을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는 고위험시설 4485개소, 중위험시설 1590개소, 10인 이상 집합금지시설 3466개소 등 총 9541개소로 파악됐다. /한동주 기자

# 동명동 카페거리 '착한 임대료' 동참

상생협의회 건물주 20여 명 3개월간 10~30% 인하 결정

동구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움직임으로 동명동 카페거리 건물주들이 다시 한 번 '착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건물주 20여명은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과 동명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30%(자율참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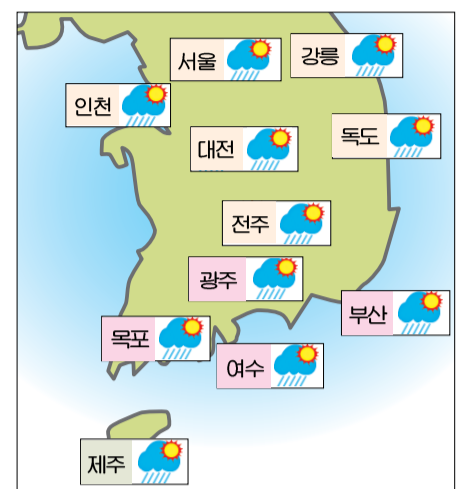
하겠다는 건물주들의 강한 의지다. 또 상생협의회는 2월에 이어 '착한 건물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동명동 임대료 인정을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할 건물주를 모집하는 운동이다. 앞서 상생협의회는 2월24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15% 낮추기로 하고, 뜻을 함께할 착한 건물주 모집에 나섰다. /김도희 기자

# 날씨

3일은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26~30도로가 되겠다.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 9월2~3일은 2.0~8.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의 날은 1.0~3.0m로 일겠다.

날짜	3일(목)	4일(금)	5일(토)	6일(일)	7일(월)	8일(화)
날씨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23~28	80 0
나주		23~27	80 0
담양		21~25	80 0
순천		22~27	80 0
영광		23~27	80 0
목포		23~27	80 0
무안		23~27	80 0
진도		21~24	80 0
여수		24~27	80 0
광양		23~28	80 0
고흥		22~27	80 0
완도		24~27	80 0
해남		23~26	80 0
장흥		23~27	80 0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50~72	2~4
	먼바다	북서-북	65~97	4~7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65~97	4~7
	먼바다	서-북서	50~72	3~6

# 광주시민 '외국인과 결혼 자연스럽다'

가족 수용성 조사...71.1% 찬성 · 20대 86.6%

광주시민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8월3일~14일 까지 실시한 가족 다양성 수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족의 정의에 대해 법적 혼인이나 혈연에 의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답변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혼인·비혈연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60.3%)했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인식(38.3%)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는 외국인과의 결혼(71.1%), 이혼·재혼(66.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56.0%)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47.3%),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42.8%),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30.9%),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17.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았다. 특히 20대는 독신(91.8%), 외국인과의 결혼(86.6%), 비혼(86.1%), 이혼·재혼(81.6%), 비혼 동거(79.6%) 등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용도가 높았다. /한동주 기자

# '태풍 대비' 원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경보단계 격상

원도해양경찰서 제 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에 대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단계를 '경보'로 격상했다. 원도해경은 2일 태풍 북상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 단계를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대풍속이 초속 47m,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도=이두식 기자

## 농장직영 **진남멤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